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힘이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물리적인 힘을 마구잡이로 휘둘러대는 사람들에 대하여 “물불을 안가린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털도 뽑지 않고 ‘꿀꺽 꿀꺽 해먹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그 말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물과 불에 보태어 흙과 공기까지 엄격하게 ‘가린’ 사람들이 고대 그리이스에 있었으니, 그들을 다원론자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만물을 생성시킨 원소는 단순한 원소가 아니라, 다양한 원소들이라고 보기 때문 이다.

물과 다원론자들

그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엠페도클레스(Empedokles, B.C. 490-430)이다.

엠페도클레스는 물, 불, 흙, 공기라는 네 가지로부터 만물이 생성된다고 보아, 그것들을 만물이 생겨난 ‘뿌리’라고 불렀다.(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들을 ‘원소’라고 부름으로써, 그후 2,000년동안 화학을 지배하게 되는 4원소설이 여기서 비롯된다.)

엠페도클레스에 의하면 그 네 가지 원소들은 ‘사랑과 미움’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결합되거나 분리되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만물이 생성·소멸 되어진다고 한다. 가령 사랑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네 가지 원소들이 결합하여

어떤 사물을 생성시키고, 미움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그 사물은 소멸 하여 원래의 원소들로 복귀한다는 것이다.

엠페도클레스는 자연철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더 강렬하게 인간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중시한 철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진다.

어느날 엠페도클레스는 어떤 잔치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초대되었다. 그런데 식사가 한참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주인은 술을 내올 기색을 하지 않고 있었다. 엠페도클레스는 술을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뭔가 허전하다 싶어 주인에게 “왜 술을 내놓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주인은 “높으신 어른께서 왕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얼마후 과연 그 높으신 어른이 오니까 주인은 그를 잔치상의 상좌에 모셨고, 손님들은 높으신 분이 계셔서 부담이 되어서인지 얌전히 부침개나 집어 먹을 뿐이었다. 그런데 좌장이 된 그 관리는 혼자서 훌쩍훌쩍 양주를 마시다가, 이윽고 손님들에게 술잔을 하나씩 돌리면서 “술을 마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머리에 부어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었다. 엠페도클레스는 그런 오만한 관리의 모습에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다음날 그는 술마시기를 강요한 관리와 제멋대로 그를 좌장으로 정한 주인을 법정에서 고소

이 은 형

(경기대 교수, 철학)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모두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을 당하였다.

아마도 당시의 상황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도의 이상의 평등이 존재하고 있었던가 보다. 그러나 ‘인간은 평등하다’는 엠페도클레스의 신념과는 달리, 그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인간의 평등’과 ‘능력의 불평등’과의 갈등은 평등의 문제를 다룰 때마다 항상 만나는 이율배반적인 한계로써 엠페도클레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다.

엠페도클레스는 의사이기도 하였는데 수 많은 의사들이 두 손 든 판티아라는 부인의 병을 고쳐 주었다고 한다. 그가 ‘마술사’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도 일주일동안 맥박도 뛰지 않고 숨도 쉬지 않던 그녀를 살려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에 관한 여러 전기들은 그를 일종의 신통력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인간의 평등을 온몸으로 믿었던 엠페도클레스였건만, 사람들은 그의 뛰어난 능력으로 인해 그를 신(神)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심지어 그의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신비스러운 이야기들이 남아 있다. 즉 엠페도클레스는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연회에 참석했었다. 잘 먹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노래방을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단란주점에 간다고 뿔뿔이 흩어졌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 보아도 엠페

도클레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엠페도클레스의 제자인 파우사니우스(Pausanias, 기원전 5세기의 스파르타의 장군)도 함세하여 하인들을 풀어 계속 그를 찾았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다.

한참 지난 후 파우사니우스가 불안해 하며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 쪽으로 험레벌떡 뛰어오더니 “더이상 그를 찾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분께서는 뜻밖의 사건이 생겨서 지금은 신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뜻밖의 사건이란 무엇인지 잠깐 화면을 뒤로 돌려 보자.

엠페도클레스는 연회석에서 슬그머니 일어나 당시 활화산이었던 에트나 화산으로 올라가 용암이 철철 넘치는 분화구로 뛰어들었던 것이다. 왜 그가 불구덩이 속으로 몸을 던졌는지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이다. 뭘 잘못 먹었는지도 모르지만, 여하튼 그는 자신이 신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함이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의 의문사에도 불구하고, 에트나 화산의 분화구가 분출할 때 구리로 된 그의 샌들 한짝이 튕겨나옴으로써 그의 죽음 자체는 확인되었다. 그리하여 “까맣게 탔도다”라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시가 지금까지 전해 온다.

엠페도클레스의 4원소 만으로는 자연물의 성질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또 한사람의 다윈론자는 아낙사고라스(Anaxago-

ras, B.C.499-428)이다. 그에 의하면 에켄대 사람의 머리카락이 4원소의 일정한 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기에 머리카락과 그들 원소와는 너무나 다른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아낙사고라스는 ‘무한히 많은 성질의 입자’(그는 ‘씨앗’(spermata)이라고 불렀다)를 만물의 원소로 보았다.

아낙사고라스에 따르면 처음에는 씨앗들이 무질서한 혼돈 속에 있다가 점차 일정한 혼합을 시작함으로써 물, 불, 공기, 흙 등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즉 씨앗 속에 이미 4원소의 성질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아낙사고라스는 “태양은 신이 아니라 불타는 돌덩어리다”라고 주장함으로써 불경죄로 아테네에서 추방당한 비운의 철학자이다. 당시 그리이스의 국민 종교에서 태양은 곧 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국가 권력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인류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아낙사고라스가 추방당하기 전, 그는 아들의 사망소식을 접하게 된다. 이때 그는 “나는 아들을 만들었을 때 그가 죽어야 할 인간임을 알고 있었다”라고 담담하게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자식의 죽음을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아낙사고라스는 임종할 때 유언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는 친구에게 “일년에 한번쯤은 어린이들을 즐겁게 놀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대답함으로써 자

식의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그의 유언은 실행에 옮겨져 기원후 3세기까지 계속되었다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어린이날의 효시였던 셈이다.

그런데 아낙사고라스의 ‘씨앗’ 개념을 좀더 보완한 마지막 다원론자가 데모크리토스(Demokritos, B.C. 460-360)이다. 그는 씨앗개념을 좀더 분석하여 “씨앗을 쪼개고, 쪼개고, 또 쪼개 보면 더이상 쪼갤 수 없는 같은 성질의 입자가 나온다. 바로 그 입자가 만물을 생성시키는 가장 궁극적인 단위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그 궁극적인 입자를 원자(atoma)라고 불렀고, 이 때문에 그의 주장을 원자론이라고도 한다.

현미경도 없던 시대에 오로지 사유만으로 그토록 미세한 입자의 존재를 간파한 그의 능력이 놀랍기만 하다. 그러나 세계를 원자의 단순한 결합으로 설명한 그의 주장은 그후 계속 비판만 받음으로써 근대에 올 때까지도 깊은 잠을 자야만 했다. 이는 학문의 발전이 더딘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의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학문 발전의 원동력은 ‘가설과

반박’의 과정이 계속되는 속에 있다. 한 가지 가설이 세워지면, 거기에 대해 반박하여 다른 가설을 세우고, 다시 그 가설이 반박되는 과정에서 학문이 발전하는 것이다. 만일 어떤 이유에서건 누군가의 가설이 일반적으로 방치되고 있다면, 그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혹시 우리 학문의 성과들 중에도 창고에서 썩고 있는 것들이 있을지 모른다. 먼지만 털어내면 지금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이론들임에도 말이다.